

主題

2002년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국장 노 준 형

차 례

- I. 서언
- II. 정보통신 기술개발 성과 및 문제점
- III. 외국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 IV.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V. 결어

I. 서언

IT산업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은 이래 2001년은 그 어느 해보다 IT산업과 세계 경제가 상호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컴퓨터 수요의 위축으로 인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IT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닷컴기업의 몰락 등 IT 시장의 거품경기가 붕괴되면서 IT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경제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2001년도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요 키워드로서 xDSL, B2B, VoIP, JAVA, MPEG, IDC, Digital Broadcast, Post PC, Bluetooth, 무선LAN, GRID, BT/NT 등이 손꼽히는 것으로 보아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얼마나 다양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기술의존성이 증대되면서 초일류기술만이 살아남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혁신은 그 어느때보다 더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하고 있다.

무선통신기술이 4세대로 나아가고 있고 인터넷의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보통신 기술은 이용자의 다양한 통신욕구를 수용하도록 고속·대용량화, 지능화, 소형화, 통합화, 융합화, 그리고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현재의 Mbps급에서 Gbps 급을 거쳐 Tbps급으로 고속화될 것이며, 테라급 WDM 전송기술의 확보를 통해 전광통신망(全光通信網)을 달성하고, 초소형화로 개인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기존 유선망과 무선 인터넷과 IMT-2000, 이동멀티미디어 인터넷을 연결하는 유무선 통합을 실현하면서 글로벌화, 인간화,

지능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실현되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 전통산업 및 BT/NT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일류기술을 적극 창출하면서 새로운 경쟁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기술개발추진이 요구된다 하겠다.

II. 정보통신 기술개발 성과 및 문제점

1. 정보통신 기술개발 실적

그간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으로 1993-2001년 동안 총 5조 8,252억원을 투입하였다(출연 3조 1,102억원 포함). 특히 기술개발투자는 1993년 722억원에서 2001년 5,093억원으로 705%나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최근 10여 년간의 주요 기술개발 성과를 보면, 우선 전자교환기(TDX), 메모리반도체(DRAM), 이동통신(CDMA)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수준의 기

술을 확보하여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핵심부품 및 정보가전 분야에서도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수입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병행하여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민간연구소 설립이 증가되어 정보통신 관련 민간연구소가 1995년 510개에서 2000년 3,392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연구소의 47.7%를 점유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총 수출은 1999년 399억 달러에서 2000년 51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는 15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118억 달러의 131%를 차지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확보하여, ADSL 보급률 및 인터넷 이용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CDMA, IMT-2000 장비 및 단말기의 국산화로 무선통신기술의 자립기반을 확보하였다.

2.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문제점

정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및 민간의 산업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술개발의 역사, 미약한 연구기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단축을 위한 노력의 결

표 1.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계	
출연	기술개발	722	977	1,155	1,748	2,336	2,303	1,900	1,970	5,093	18,204
	인력양성	35	45	40	65	594	1,010	830	690	4,311	7,620
	표준화	95	26	139	88	107	260	210	180	337	1,442
	연구기반조성	118	164	282	309	421	430	414	460	1,148	3,746
	출연소계(A)	945	1,142	1,429	1,997	3,134	3,671	3,039	4,840	10,889	20,197
기술개발투자용자(B)	800	1,715	2,210	2,350	2,850	4,365	4,300	3,700	4,950	27,240	
합계	1,770	2,927	3,826	4,650	6,338	8,368	7,654	7,000	15,839	58,252	

과, 국산화(TDX), 제조기술 확보(DRAM, CDMA 단말), 시스템 및 운영기술 확보(TDX, CDMA)에 성공하였으나,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기술종속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브로드밴드 시대의 도래와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단축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제조기술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나아가 지속적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원천 및 핵심부품의 기술자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초고속 관련 국산장비의 경쟁력 열세를 들 수 있다. 중소형 라우터, ADSL 장비 등 네트워크 장비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인터넷 장비의 수입의존도가 아직은 높은 추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살펴보면 이용자수는 1997년 160만명에서 2001년 9월 현재 2,400만명으로 15배이상 성장하였으며, 광대역인터넷 가입자수는 2001년 9월 현재 700만명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인구와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기초기반연구보다는 개발연구 위주로 추진되어 원천기술 확보에 애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의 기술수요 조사에 근거한 중점기술 도출과 산업화에 중점을 둔 기술정책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Ⅲ. 외국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기초 연구를 강화하면서, 정보기반사업인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타 기술과의 융합에 따른 IT분야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기술정책

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개발정책의 목표를 네트워크 및 정보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21세기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응용기술분야를 적극 개발하는데 두고 있다. NSTC가 발표한 "Information Technology: The 21st Century Revolution" 보고서에서는 고도의 컴퓨팅부문에 지속적인 집중투자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규모 네트워크,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및 정보관리, 고 신뢰성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IT기술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연구 및 정보 교육강화 등을 세분화하여 6대 기술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도 미국의 IT 예산(1,970백만달러)은 2001년도 예산(1,928백만달러) 비해 전년대비 +2.2%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 분야별 기준으로는 고도 컴퓨팅(HECC: High End Computing and Computation)분야에 9억 달러로서 전체예산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규모 네트워크(Large Scale Networking)이 전체예산의 16.4%를 차지하여, 이 두 분야에 지속적으로 집중투자를 하고있다. 고 신뢰성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High Confidence Software and System)이 전년대비 18.2%로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사회 경제적 영향연구 및 정보화교육도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있다.

일본은 정보기술계획 추진체계의 중심인 총무성이 모바일 기술, 인터넷기술, 포토닉스 네트워크기술, 정보보호기술, 양자정보통신기술 등 5대 기반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합과학기술회의(2001년 7월 22일)에서는 고속·고 신뢰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차세대 신기술인 양자공학기술 및 나노기술, 고도 도로통신 시스템(ITS) 등 중점적 연구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총합과학기술회의의 2002년도 정보기술에 관한 R&D투자결정에 의하면

2001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정보통신 기술개발자금을 2배로 증액할 방침이며, 향후 정부투자액은 연평균 약 1,200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유럽은 우수한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 유럽국가의 연구통합 등을 통하여 미국, 일본과의 기술정책 및 연구성과 격차를 해소하고 유럽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술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유럽 연구분야(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인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2002-2006"에서는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정보사회기술, 나노기술, 항공우주, 식품안전 및 건강위험 통제, 지속적 개발을 위한 에너지·운송·지구생태연구, 공개된 지식기반사회에 관한 연구 등 7대 중점연구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4년 간(2002-2006) 7대 중점연구분야를 세분화하여 총 17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IV.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1. 기술개발 정책방향

정부에서는 21세기 정보통신기술개발 경쟁의 심화에 대비하고 IT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경쟁력과 산업육성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기술 위주의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대형국책과제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술개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인터넷 및 4세대 이동통신 등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식"과 "기술"이 체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규교육기관의 교

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사 이상의 고급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며 장단기 산업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Global Standard 시대에 대응하는 표준화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맞는 시험 인증제도의 확립 및 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중심의 국가표준화를 활성화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표준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IMT-2000의 국제 표준제정에서 보듯이 정보통신의 글로벌화로 국제적 상호 호환성이 중요해지고 세계시장의 단일화로 세계표준화 여부가 정보통신 분야 수출산업화의 핵심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도 표준개발자(Standards-maker)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표준화정책을 추진하고 세계시장 중심의 표준화활동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산업체 개발제품의 표준적합성과 제품성능에 대한 대외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인증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다.

네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IT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환경 구축 및 기반 조성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IT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연구시설, 정보유통 체계, 세계시장진출을 위한 현지거점 등을 중점 구축할 것이다. 또한 하이테크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보유 기업이 쉽게 창업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환경을 구축하고 경영진단, 마케팅·법률자문 등 경영 애로점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개발에 7,472억원, 인력양성에 2,556억원, 표준화에 330억원, 연구기반조성에 1,025억원 등 2002년에 총 1조 1,4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2002년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내용

가. 기술개발 부문

정부에서는 2002년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에 출연 3,452억원, 융자 3,500억원, 투자 450억원을 포함하여 총 7,492억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출연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에 3,042억원을 투입하고 산업기술개발분야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400억원과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에 100억원을 포함하여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2> 참조

정보통신 기술개발은 9대 전략분야인 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S/W·컨텐츠, 컴퓨터, 정보가전, 정보보호, 원천기술, 핵심부품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고용확대 및 수출산업화를 실현하고 새

로운 경쟁원천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우선 대형 중장기 계획을 국책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전략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무선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여 4세대 이동통신, IMT-2000 고도화 및 무선LAN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광인터넷, 테라비트급 액세스, 정보가전, 지능정보단말기, 초고속 인터넷 서버, 통합방송기술 개발 및 사이버 테러 대응 및 안전한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IT 기술과 연계하여 전통산업의 IT화 및 BT, NT 등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기술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형 국책과제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중장기적인 경쟁의 원천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 2.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투자규모

전략 분야	2001년 규모		2002년 규모(안)			비율	
	계	비율	계속	신규	합계		
정보통신부	광인터넷	419	11.4	266	228	494	16.2
	정보보호	255	6.9	202	76	278	9.1
	디지털방송	102	2.8	55	102	157	5.2
	무선통신	450	12.2	113	198	311	10.2
	컴퓨터	89	2.4	57	62	119	4.0
	소프트웨어	452	12.2	338	40	378	12.4
	정보가전	160	4.3	152	25	177	5.8
	핵심부품	544	14.7	308	85	393	12.9
	원천기술	189	5.1	235	40	275	9.0
	기타	168	4.6	-	-	-	-
정보통신부 소계	2,828	76.6	1,726	856	2,582	84.9	
타부처	BT/NT 및 전통산업 IT화	465	12.6	410	-	410	13.5
	핵심부품, 원천	400	10.8	50	-	50	1.6
	타부처지원 소계	865	23.4	460	-	460	15.1
계	3,693	100.0	2,186	856	3,042	100.0	

나. 인력양성 부문

시장변화 및 산업수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IT 전문기술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을 확충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폭넓게 실시할 계획이다.

인력양성부문의 추진방향은 우선,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첨단시설·장비지원 및 우수한 국내·외 교수요원 초빙 등을 통한 기초 기술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대학 IT 연구센터 등을 지원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장학 프로그램 등으로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T SoC, JAVA, RF 등 IT 특화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정보보호, 게임 등 IT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상의 Cyber 교육을 통한 기존 산업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지원하며,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IT 잠재인력 및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은 2002년도에 2,5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기초인력 양성에 740억원, 고급인력양성에 461억원, 산업인력양성에 738억원, 잠재인력양성에 6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표3〉 참조). 특히 이중에 산업인력양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도에 비해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다. 표준화 부문

정보통신 표준화 제도정비, 표준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실표준화 활동에 대응강화, 중점 전략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지원을 통하여, Global Standard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 표준화 지원사업에는 2001년도 330억 원을 투자하여 표준개발에 140억원, 표준화활동 기반구축 지원에 1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표4〉 참조).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핵심 전략분야 표준개발 활동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

표 3. 인력양성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A)	2002년 (B)	증감 (B-A)
· 기초기술인력양성	190,800	74,000	▽116,800
· 고급전문인력양성	50,350	46,114	▽4,236
· 산업인력재교육	59,088	73,874	14,786
· 잠재인력양성	130,880	61,584	▽69,296
합 계	431,118	255,572	▽175,546

표 4. 표준화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A)	2002년 (B)	증감 (B-A)
·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13,170	14,000	830
· 정보통신표준화활동기반구축	20,530	19,000	▽1,530
합 계	33,700	33,000	▽700

전자상거래, 전자지불시스템, 국가지리정보시스템 등 핵심 표준 개발활동의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민간의 표준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화의 핵심 요소인 국제 표준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세계 표준화 기구나 단체에서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과 국제 기술표준에 산·학·연 공동대응을 통한 정보통신 표준화 포럼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표준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변국가의 정보통신 표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화 회의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국제 표준화 활동에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또한, 제정된 표준의 실효성과 산업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라. 연구기반조성 부문

연구기반조성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사업화로 연결하고, 능력있는 중소기업이 정보통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해외진출, 기술 및 경영컨설팅, 정보유통 등 기반환경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기반조성사업은 금년에 1,0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지원사업에 270억원, 중소기업지원사업에 87억원, 기술정보지원사업에 84.5억원, 정책지원사업에 58.5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이관받은 사업에 52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표 5〉 참조).

연구기반조성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핵심역량인 기술력이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안정적인 연구 및 사업환경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연구·시험환경의 공동활용체계를 개선하고, 공통 애로기술 및 경영 관련 컨설팅 제공과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심화에 따른 역기능을 극복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개발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정책연구도 강화하여 기술 혁신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V. 결 어

앞으로 우리의 기술개발정책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이용하는 수준에서 전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므로 높은 기술개발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이 기술 패권주의 입장에서 기술을 대 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아 기술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

표 5. 연구기반조성사업 부문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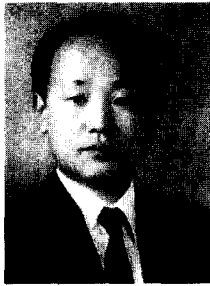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A)	2002년 (B)	증감 (B-A)
· 연구지원사업	37,000	27,000	▽10,000
· 중소기업지원사업	12,540	8,700	▽3,840
· 기술정보지원사업	11,760	8,450	▽3,310
· 정책지원사업	8,500	5,850	▽2,650
· 일반회계이관사업	45,032	52,530	7,498
합 계	114,832	102,530	▽12,302

구되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과거의 기술개발 추진전략은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WTO체제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가 보장되지 않는 환경하에서 기술개발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기술수요와 공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에 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나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노준형

1976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7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주요경력> 1978년 5월 행정고시(21회) 1986년 6월~1986년 1월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실, 1986년 1월~1993년 2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심사분석 2과장, 투자기관관리과장), 1993년 2월~1994년 8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파견, 1994년 8월~1995년 5월 정보통신정책실 정보망과장, 1996년 7월~1996년 12월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 1996년 12월~1997년 6월 정보통신부 공보관, 1997년 5월~1998년 3월 정보화기획실 정보화기획심의관, 1998년 3월~1999년 1월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999년 1월~2000년 3월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2000년 3월~2001년 1월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2001년 1월~2001년 9월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2001년 9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